

2024년 12-1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12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 한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 16 [포스코경영연구원 (2024년 12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3%, 유로존 성장률 0.4% 기록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감세’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 재심화, 경기 연착륙 난항 등 우려 부상
- 일본은 9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3분기중 소비 증가에도 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성장률이 0.3%에 그친 반면, 유로존은 9월 실물지표들의 부진에도 3분기 주요국 성장률의 반등에 힘입어 역내 성장률이 0.4%로 상승
- 중국은 10월 소비와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된 가운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中 정부의 전방위 경기부양책에 관심
- 달러화는 11월중 美 대선 결과와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고, 12월 들어서도 유럽 국가들(獨·佛)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강보합
- 유가는 11월에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일정 범위의 등락세를 보이고, 12월 들어도 OPEC의 증산 연기와 美 달러화의 강보합 등에 제한적 등락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감소

-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보합(전월비 0.0%)에 그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감소(-0.3%)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의 동반 증가에도 내구재 판매가 큰 폭 감소하면서 전월비 0.4%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전월과 달리 5.8% 감소

□ 국내금융 : 11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12월 초(12월 2일 ~ 10일) 금리 소폭 하락 및 원/달러 상승세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 대출의 소폭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폭 둔화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의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美 대선 결과와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
- 원/달러 환율은 11월 美 대선 이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1,400원을 넘어서고, 12월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6.5%, 서비스업생산 +1.9%

- 제조업생산은 철강·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조선·반도체·기계장비·자동차·섬유·화학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6.5% 증가
 - 제조업ICT 등 중공업 생산은 상당폭 증가, 경공업 생산도 증가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9% 증가

□ 고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4% 증가

- 지난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과 달리 약간 더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10월 0.3% → 11월 0.4%)

□ 수출입 : 11월 수출 +1.4%, 수입 -2.4%, 무역수지 56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한 564억 달러, 수입이 2.4% 감소한 50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컴퓨터·선박류·반도체·철강 등 소수 품목만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디스플레이·일반기계·석유제품·가전·자동차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EU·중남미·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중국·일본·인도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세가 4개월 연속 둔화(10월 4.6% → 11월 1.4%)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실물지표 혼조, 트럼프 2기 정부 인플레 재심화 우려 부상

○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과 체감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방향성이 불투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와 '감세 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 재심화 및 경기 연착륙 난항 등 우려도 제기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3%)과 유틸리티(0.7%)의 동반 증가에도 제조업(-0.5%)의 감소 여파로 2개월 연속 감소(-0.3%)한 반면, 소매판매는 전자제품(2.3%)과 자동차(1.9%) 등 판매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0.4%)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와 고용의 동반 상승에도 생산 부진의 여파로 3개월 만에 하락(46.5)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24.3)와 미래 기대지수(81.7)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98.7)
-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비 증가세가 크게 축소(9월 +22.3만 개 → 10월 +1.2만 개), 경기선행지수도 8개월 연속 하락세(9월 -0.3% → 10월 -0.4%)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편 관세'와 '감세 연장'의 우선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 재심화 및 경기 연착륙 난항 등의 우려도 제기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5	2.9	1.6 (2.9)	3.0 (3.0)	2.8 (2.7)				
산업생산 (IT생산)	3.4 (6.5)	0.2 (5.7)	-0.4 (0.6)	0.6 (3.7)	-0.2 (1.4)	-0.7 (0.8)	0.5 (1.9)	-0.5 (-0.2)	-0.3 (0.7)
내구재수주	8.2	4.4	-3.3	-1.1	3.9	9.8	-0.9	-0.7	0.6
소매판매	9.1	3.6	-0.2	0.5	1.3	1.2	-0.1	0.8	0.4
소비자물가	8.0	4.1	0.9	0.7	0.3	0.2	0.2	0.2	0.2
실업률(%)	3.6	3.6	3.8	4.0	4.2	4.3	4.2	4.1	4.1
무역수지(10억U\$)	-944.8	-784.9	-203.2	-225.2	-233.6	-79.2	-70.6	-83.8	-73.8
ISM 제조업지수 ¹⁾	53.5	47.1	49.1	48.8	47.1	46.8	47.2	47.2	46.5
소비자신뢰지수 ²⁾	104.5	105.4	106.3	98.9	102.2	101.9	105.6	99.2	108.7
경기선행지수 ³⁾	115.1	106.3	102.5	101.3	100.2	100.5	100.2	99.9	99.5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3분기 투자 부진에 전기비 성장률 0.3%

- 9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는 수출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적자. 3분기중 소비 증가(전기비 0.7%)에도 투자 부진(-0.1%)으로 성장률이 소폭(0.3%)에 그친 가운데 日 정부는 저소득층 보조금 등 130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추진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9	1.5	-0.6	0.5	0.3				
광공업생산	0.0	-1.4	-5.1	2.7	-0.4	-4.2	3.1	-3.3	1.6
민간기계수주	5.4	-3.8	4.4	-0.1	-1.3	2.1	-0.1	-1.9	-0.7
소매판매	2.6	5.7	0.0	1.8	1.1	0.6	0.2	1.0	-2.2
소비자물가	2.5	3.3	0.2	0.8	0.9	0.3	0.2	0.5	-0.3
실업률(%)	2.6	2.6	2.5	2.6	2.5	2.5	2.7	2.5	2.4
무역수지(10억엔)	-20,330	-9,322	-1,767	-1,475	-1,638	219	-634	-709	-294
경기선행지수 ¹⁾	112.3	109.2	111.1	110.4	108.4	109.1	109.3	106.9	109.1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0월 내·외수 확대, 中 정부의 전방위 경기부양책 여부에 관심

- 지난 10월 생산의 완만한 증가세 속에 소비가 상당폭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내·외수 지표들의 호조 전환을 반영. 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을 위한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등 전방위 경기부양책에 관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5.3	4.7	4.6				
산업생산	3.4	4.6	5.8	5.9	5.0	5.1	4.5	5.4	5.3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4.5	3.9	3.4	3.6	3.4	3.4	3.4
소매판매	-0.8	7.8	4.3	2.7	2.7	2.7	2.1	3.2	4.8
소비자물가	2.0	0.2	0.0	0.3	0.5	0.5	0.6	0.4	0.3
수출(달러화기준)	5.6	-4.7	1.1	5.7	6.0	7.0	8.7	2.4	12.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부진, 역내 3분기 성장률 0.4%(전기비)로 상승

- 9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내수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역내 인플레이션이 1%대로 추가 둔화세. 3분기중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반등에 힘입어 역내 성장률이 전기비 0.4%로 상승(전년동기비 0.9%)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4	0.5	0.3	0.2	0.4				
산업생산	2.1	-2.1	-1.0	-0.4	-0.3	0.1	-0.3	1.5	-2.0
소매판매	1.3	-1.9	0.2	0.3	0.9	-0.7	0.4	1.1	0.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8.4	5.4	2.6	2.5	2.2	2.5	2.6	2.2	1.7
무역수지(10억유로)	-346.1	51.7	59.4	46.0	37.3	16.1	13.0	10.8	13.6
경제체감지수 ¹⁾	102.1	96.3	96.0	96.0	96.2	96.0	95.9	96.4	96.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보합 및 유가 제한적 등락

- 달러화는 11월중 美 대선 결과와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한 이후 美 국채금리의 하락 전환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12월 들어 유럽 국가들(獨·佛)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연준의 통화정책 경계감 등으로 강보합
- 유가는 11월에 OPEC의 감산 축소 지연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망감, 러시아-우크라이나 학전 우려 등으로 일정 범위의 등락세를 보이고, 12월 들어서도 OPEC의 증산 연기와 美 달러화의 강보합 등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0일
엔/달러	151.35	157.80	157.31	160.88	149.98	146.17	143.63	152.03	149.77	151.95
달러/유로	1.0790	1.0666	1.0848	1.0713	1.0826	1.1048	1.1135	1.0884	1.0577	1.0527
미 국채 (10년만기)	4.20	4.68	4.50	4.40	4.03	3.90	3.78	4.28	4.17	4.23
WTI유	83.2	81.9	77.0	81.5	77.9	73.6	68.2	69.3	68.7	68.6
두바이유	86.8	87.6	82.7	84.9	79.5	77.1	72.5	71.7	72.0	72.1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감소

○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보합(전월비 0.0%)에 그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감소(-0.3%)

- 광공업생산이 자동차(-6.3%)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4%)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비 보합(0.0%)에 그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4%) 등의 감소에도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로 전월비 소폭 증가(0.3%)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2.7	1.4*	3.3* (1.3*)	2.3* (-0.2*)	1.5* (0.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2	1.8*	1.0* (0.7*)	0.9* (-0.2*)	1.4* (0.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3	1.1*	-1.0* (-2.0*)	-2.5* (-1.2*)	5.9* (6.5*)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3.5	1.5*	1.6* (3.3*)	-0.5* (-1.7*)	-5.7* (-3.6*)	-	-	-	-
전산업생산지수 (농림어업 제외)	4.6	1.0	2.9 (0.7)	2.1 (-0.3)	0.7* (-0.4*)	2.4 (-0.6)	1.0 (1.1)	-1.3* (-0.3*)	2.3* (-0.3*)
광공업생산지수	1.0	-2.6	5.9 (-0.3)	4.8 (1.1)	2.4* (-1.0*)	5.2 (-4.0)	3.6 (4.2)	-1.4* (-0.1*)	6.3* (0.0*)
제조업생산지수	0.9	-2.6	6.2 (-0.5)	5.0 (1.5)	2.3* (-1.3*)	5.4 (-4.2)	3.5 (4.1)	-1.5* (0.0*)	6.5* (0.4*)
서비스업생산지수	7.0	3.2	2.1 (0.8)	1.6 (-0.3)	0.8* (0.2*)	1.8 (0.4)	0.9* (0.1)	-0.5* (-0.8*)	1.9* (0.3*)
소매판매액지수	-0.3	-1.5	-2.1 (-0.5)	-2.9 (-0.8)	-1.9* (-0.7*)	-2.2 (-2.0)	-1.5 (1.5)	-2.4* (-0.5*)	-0.8* (-0.4*)
설비투자지수	2.5	-4.9	0.3 (-3.8)	-1.5 (-0.2)	10.8* (10.4*)	18.1 (9.7)	7.1 (-5.6)	7.3* (10.1*)	5.8* (-5.8*)
건설기성(불변)	2.8	7.3	4.1 (4.9)	-3.0 (-6.2)	-9.2* (-4.6*)	-4.9 (-0.3)	-9.6 (-2.2)	-12.9* (-0.7*)	-9.7* (-4.0*)
동행종합지수(202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8.2 100.9	110.2 100.1	111.8 99.9	111.8 99.3	111.3* 98.2*	111.2 98.3	111.3* 98.2*	111.4* 98.1*	111.6* 98.1*
선행종합지수(202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8.7 100.5	110.9 99.3	114.1 100.3	115.3 100.6	116.3* 100.7*	116.0 100.7	116.2* 100.6*	116.6* 100.7*	116.8* 10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가 동반 증가한 영향에도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상당폭 감소한 여파로 인해 전월비 기준 0.4% 감소
-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전월비 -5.4%)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7.2%)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5.8%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9.5%)과 건축(-1.9%) 공사 실적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4.0%)
- 동행종합지수가 건설기성액과 서비스업생산지수가 감소한 반면,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소폭 상승(0.2%)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한 반면,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면서 20개월 연속으로 상승(0.2%)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5%

-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0%)과 음식·숙박(0.2%) 등에서 상승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0.0%)는 보합에 그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2.6%) 등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3% 하락(전년동월비 1.5%)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 하락 전환(전월비 5.3% → -8.7%)에도 공산품 가격(-0.7% → 0.2%)과 서비스 가격(-0.2% → 0.2%)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월비 하락세가 둔화(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5.1	3.6	3.0 (0.7)	2.7 (0.3)	2.1 (0.4)	2.4 (-0.2)	2.6 (0.3)	2.0 (0.4)	1.6 (0.1)	1.3 (0.0)	1.5 (-0.3)
근원물가	4.1	4.0	2.6 (0.5)	2.1 (0.4)	2.0 (0.3)	2.0 (0.1)	2.1 (0.1)	1.9 (0.1)	1.8 (0.1)	1.7 (0.3)	1.8 (0.0)
생산자물가	8.4	1.6	1.4 (0.8)	2.2 (0.6)	1.7 (0.1)	2.5 (0.0)	2.6 (0.3)	1.6 (-0.2)	1.0 (-0.2)	1.0* (-0.1*)	-
근원물가	6.3	0.9	1.1 (0.6)	1.9 (0.9)	1.9 (0.0)	2.4 (0.1)	2.6 (0.2)	1.8 (-0.3)	1.2 (-0.3)	1.3*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1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둔화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중소기업 대출도 상당폭 둔화되면서 전체 기준 전월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
(2024년 10월 +8.1조원 → 11월 +2.2조원, 대기업 +0.2조원, 중소기업 +2.0조원)
 - 대기업 대출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금수요 축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중소기업 대출 역시 주요 은행들의 대출영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
- 회사채는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와 발행금리 하락 등으로 순발행
(2024년 10월 +0.6조원 → 11월 +0.7조원)
- CP·단기사채는 우량기업들을 중심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4년 10월 -1.5조원 → 11월 -0.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비 소폭 증가
(2024년 10월 +0.8조원 → 11월 +0.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1월말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잔액
■은행 기업대출(원화)	114.1	10.5	83.4	7.3	78.8	4.3	8.1	2.2	1,326.6
(대 기 업)	43.6	6.5	34.0	1.5	31.0	0.8	2.9	0.2	278.8
(중소기업)	70.5	4.0	49.4	5.8	47.8	3.5	5.3	2.0	1,047.7
<개인사업자>	20.5	0.3	8.5	0.9	6.5	0.3	0.3	0.4	456.7
■회사채 순발행	-6.5	-1.1	-1.2	-0.9	0.4	-1.3	0.6	0.7	..
■CP 순발행	22.0	3.3	3.5	-2.1	2.5	1.1	-1.5	-0.6	58.0
■주식발행	21.2	0.6	10.5	3.4	7.0	0.1	0.8	0.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1월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더욱 축소되고, 기타대출 역시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024년 10월 +3.8조원 → 11월 +1.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둔화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등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4년 10월 +3.6조원 → 11월 +1.5조원)
-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
(2024년 10월 +0.3조원 → 11월 +0.4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1월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0월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2.9	-1.0	33.8	5.4	46.4	5.6	3.8	1.9	1,141.4
■주택담보대출	16.9	1.0	46.5	5.7	51.4	6.1	3.6	1.5	901.8
■기타대출	-20.0	-2.1	-12.5	-0.4	-4.8	-0.5	0.3	0.4	238.5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2월 초(12월 2일 ~ 10일) 금리 소폭 하락·원/달러 상승세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중 美 대선 결과와 연준의 소폭 금리 인하,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 러-우 확전 우려 등으로 하락하고, 12월초 비상계엄 및 탄핵 불확실성에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
(12월 2일 2.567% → 12월 10일 2.524%, -0.04%p)
- 원/달러 환율은 11월 美 대선 이후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1,400원 수준을 넘어서고, 12월초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연중 최고치인 1,430원대까지 상승
(12월 2일 1,401.3원 → 12월 10일 1,426.9원, +25.6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2	2023				2024			
		2/4	3/4	4/4	1/4	2/4	10월	11월	12.10일
국고채(3년)	3.72	3.66	3.88	3.15	3.32	3.18	2.94	2.61	2.52
회사채(3년, AA-)	5.23	4.47	4.64	3.90	3.93	3.66	3.50	3.19	3.18
CD(91일)	3.98	3.75	3.83	3.83	3.64	3.60	3.43	3.29	3.30
CP(91일)	5.28	4.02	4.08	4.32	4.24	4.17	3.54	3.39	3.42
원/달러	1,264.5	1,317.7	1,336.5	1,288.0	1,347.2	1,376.7	1,379.9	1,394.7	1,426.9
원/100엔	953.2	907.0	901.3	912.7	889.5	864.3	902.2	920.9	947.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6.5%, 전월비 +0.4%

○ 제조업생산이 철강(-3.1%), 전자부품(-7.6) 등 업종을 제외하고 조선(19.3%), 반도체(17.5%), 기계·장비(9.7%), 자동차(4.8%), 섬유(7.5%), 화학(6.2%) 등 다수 업종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5%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0.9%) 등 중공업(6.9%) 생산이 전년동월비 상당폭 증가하고, 경공업(3.8%) 생산 역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컴퓨터(-16.1%), 조선(-10.8%), 통신·방송장비(-7.6%), 자동차(-6.3%), 기계·장비(-3.8%) 등 상당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8.4%), 철강(1.5%) 등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4%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섬유, 철강 등 다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반도체와 조선, 화학 등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0.9% 상승 전환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월에 112.7%로 전월비 5.9%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0월중 출하 감소폭이 확대(-2.0% → -2.7%,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된 반면, 재고 감소폭이 축소(-6.1% → -4.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73.4%)보다 0.9%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7%), 숙박·음식점(-1.2%), 정보통신(-0.4%)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7.6%), 보건·사회복지(2.7%), 도소매(1.4%) 등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9% 증가 전환

- 전월비로도 숙박·음식점(-1.9%), 도소매(-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0.3%)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1.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3%), 운수·창고(0.3%) 등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3%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4%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 5.7%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2	2023	2024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9.6	106.8	107.5	111.5	109.0	109.7	108.1	114.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0	-2.6	5.9	4.8	2.4	3.6	-1.4	6.3	0.0
제조업 (원지수)	9,532.0	109.8	106.9	106.9	112.5	109.4	109.9	108.8	11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9	-2.6	6.2	5.0	2.3	3.5	-1.5	6.5	0.4
섬 유	110.6	-1.8	-9.4	-6.2	-1.0	-4.0	-4.9	-6.4	7.5	2.3
화 학	756.8	-9.9	-9.6	-2.3	3.3	3.9	3.2	2.6	6.2	-0.3
철 강	433.8	-8.4	2.7	0.4	-8.4	-4.3	-3.0	-3.5	-3.1	1.5
반도체	1,855.1	5.4	-2.0	44.7	22.3	8.9	11.0	-2.8	17.5	8.4
전자부품	517.8	-14.9	-18.7	9.1	10.1	-1.3	-3.1	-1.7	-7.6	0.6
컴퓨터	30.0	11.2	-12.4	-8.4	-18.5	-19.3	-16.8	-31.9	-39.8	-16.1
통신·방송장비	134.7	-5.2	-4.0	-11.6	8.4	28.0	25.9	10.3	5.8	-7.6
기계·장비	776.7	0.6	-7.8	-4.9	-0.7	1.4	-0.4	-0.2	9.7	-3.8
자동차	1,014.2	9.1	10.2	-3.2	-0.8	-3.8	0.0	-0.8	4.8	-6.3
조 선	76.7	21.0	2.3	-7.3	5.3	21.8	21.9	21.0	19.3	-10.8
- 중 공 업	8,111.7	1.0	-2.0	7.4	5.8	3.0	4.3	-0.8	6.9	0.4
- 경 공 업	1,420.3	0.7	-5.9	-1.2	0.6	-1.4	-1.4	-5.3	3.8	-0.2
- 제조업ICT	2,537.6	0.5	-5.6	32.4	18.8	7.3	8.6	-2.6	10.9	6.0
제조업 생산능력	10,000	-0.5	0.1	1.6	1.1	0.4	0.9	-0.7	0.9	1.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12.3	115.8	114.0	117.4	116.0	115.6	115.5	117.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7.0	3.2	2.1	1.6	0.8	0.9	-0.5	1.9	0.3
도소매	192.0	2.7	-0.7	-4.0	-2.2	-2.0	-1.3	-1.8	1.4	-1.4
운수및창고	85.6	18.4	12.5	12.6	10.5	7.4	8.3	4.8	7.6	0.3
숙박및음식점	49.3	16.9	0.8	-1.7	-1.4	-1.9	0.2	-3.0	-1.2	-1.9
정보통신	84.3	1.5	0.0	6.6	4.4	2.3	1.5	-0.2	-0.4	-0.1
금융및보험	174.9	8.6	6.2	3.5	2.8	0.4	-0.9	-0.7	3.6	3.1
부동산	31.7	8.0	3.2	2.9	0.7	-0.9	0.0	-4.5	-3.4	-1.5
전문·과학및기술	97.2	2.3	1.5	0.5	1.5	2.1	2.3	-0.3	3.5	-0.3
사업시설관리 등	51.6	5.3	5.0	3.4	1.1	-0.3	0.5	-2.9	-1.7	1.3
교 육	69.1	1.2	0.4	-1.1	-0.6	-0.2	-0.2	-0.8	0.4	0.7
보건및사회복지	110.6	7.7	3.6	4.2	1.0	2.1	2.6	1.2	2.7	1.8
예술·스포츠및여가	18.1	43.7	6.9	4.1	4.8	1.6	3.4	2.3	-0.6	-2.1
협화·수리및개인	23.5	4.4	4.2	-0.2	1.0	-1.0	-2.3	-2.6	-1.7	-4.0
수도·하수및폐기물	12.1	-4.6	-1.6	-2.4	-1.4	-1.3	-2.6	-1.3	4.6	-0.2
- ICT서비스업	-	5.3	1.2	4.2	3.2	1.2	-0.8	1.1	-1.4	-5.7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1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4% 증가

○ 지난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과 달리 약간 더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10월 0.3% → 11월 0.4%)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0.7% → -2.1%)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감소(-4.0% → -2.2%)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0.8% → 1.1%)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4.3% → -4.4%)하고, 도소매·숙박 음식점의 취업자 수 역시 6개월 연속 감소세(-2.1% → -1.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4.3% → -5.9%)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에, 정보통신업(6.7% → 6.7%)을 비롯해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8% → 4.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3% → 3.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7% → 3.4%)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짐에 따라 전체 증가세가 확대(2.2% → 2.4%)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7%로 전월 수준을 유지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산업	28,089	28,416	28,061	28,838	28,833	28,857	28,801	28,842	28,847	28,821
전년동기비	3.0	1.2	1.1	0.5	0.5	0.6	0.4	0.5	0.3	0.4
농림·어업	4.6	-0.8	-2.3	-1.2	-2.2	-1.6	-2.4	-2.6	-4.0	-2.2
제조업	3.1	-0.9	0.8	1.1	-0.7	-0.2	-0.8	-1.1	-0.7	-2.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3	0.5	1.0	0.9	0.9	1.0	0.8	1.1
건설업	1.6	-0.4	2.1	-1.7	-4.1	-3.9	-3.9	-4.6	-4.3	-4.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0.1	0.0	-0.8	-0.5	-0.9	-1.1	-2.1	-1.2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3.4	3.6	5.8	5.1	6.3	5.9	3.9	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1.2	0.3	1.3	1.2	0.9	1.6	2.2	2.4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8	2.8	2.5	2.5	2.4	2.5	2.7	2.7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 1.4% 증가, 수입 2.4% 감소, 무역수지 56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한 564억 달러, 수입이 2.4% 감소한 507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컴퓨터·선박류·반도체·철강 등 소수 품목만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디스플레이·일반기계·석유제품·가전·자동차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EU·중남미·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중국·일본·인도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세가 4개월 연속 둔화(10월 4.6% → 11월 1.4%)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10.8%)하고, 비에너지 수입도 소폭 증가(0.1%)에 그치면서 전체 증가율이 감소 전환(-2.4%)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8.2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0% 하락하고, 도입물량도 0.2%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16.8% 감소한 약 6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6,836 (6.1)	6,322 (-7.5)	1,634 (8.0)	1,715 (10.1)	1,735 (10.4)	572 (13.5)	576 (10.9)	586 (7.1)	575 (4.6)	564 (1.4)
수입	7,314 (18.9)	6,426 (-12.1)	1,550 (-11.0)	1,570 (-1.4)	1,600 (6.2)	538 (10.5)	541 (6.0)	521 (2.2)	543 (1.7)	507 (-2.4)
무역수지	-478	-103	84	145	135	34	36	65	32	5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11월 통계는 잠정치 기준.

2)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조선·반도체 등 수출 증가, 일반기계·철강·자동차 등 다수 업종 감소

○ 반도체 :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高부가제품(HBM·DDR5 등)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2023년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 : 월초의 부품사 파업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과 월말의 기상 악화(폭설·강풍 등)에 따른 수출차 선적 지연 등 여파로 수출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자동차부품** :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세와 해외 현지생산 확대, 전년동월의 호실적 대비 영향 등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선박류** : 2022년 상반기 이후 수주받은 물량의 인도 지속과 高부가선박(LNG 선·컨테이너선) 수출물량 증가 등으로 수출이 증가 전환
- **디스플레이** : 글로벌 소비 심리의 불안 속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 공급 감소, 전년동월의 호실적 대비 효과 등 영향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부진과 전년동월의 호실적 대비 효과 등으로 수출이 9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철강** : 경쟁국產 저가 물량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시황 회복 지연 등에도 전년동월비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 **석유** : 미국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유통사들의 보수적 물량 확보와 경쟁국 대비 불리한 가격경쟁력 등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석유제품**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과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 차질 등의 여파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의 지속과 월말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 차질 등 여파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일반기계** : 글로벌 제조업 및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과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
- **가전** :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요 감소와 유럽 지역의 수입 둔화 등 여파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컴퓨터 : AI 서버 向 SSD 수요의 견조한 추세와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PC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16.4	31.1	2.7	4.8	-3.2	-9.2	-4.4	4.9	5.5	-13.6
자동차부품	2.4	-1.6	-0.5	-4.8	-2.6	2.3	-3.6	-6.6	5.9	-8.0
선박류	-20.9	19.9	57.4	4.3	35.1	-36.5	77.8	75.2	-28.4	70.8
일반기계	2.0	4.6	0.3	-4.1	-2.2	12.6	-5.9	-13.4	-8.1	-18.9
철강	5.7	-8.5	-5.6	-14.4	-3.9	-5.2	-2.0	-4.5	8.6	1.3
석유화학	-1.4	-15.9	0.0	10.8	7.6	18.4	6.5	-1.3	9.9	-5.6
석유제품	64.9	-17.3	4.3	11.5	-3.0	15.7	-2.0	-18.6	-34.9	-18.7
섬유	-4.0	-11.3	-7.0	-3.1	-4.1	1.2	-5.0	-8.5	2.4	-3.8
가전	-7.4	-1.0	1.6	5.4	-3.5	9.1	-4.9	-14.0	5.0	-13.9
무선통신기기	-10.4	-10.2	-9.8	8.2	36.5	53.3	50.1	16.5	19.7	-3.3
컴퓨터	-4.7	-53.3	26.3	58.9	118.9	61.7	181.6	132.0	54.1	122.3
반도체	1.0	-23.7	50.7	53.5	41.4	50.2	38.8	37.1	40.3	30.8
디스플레이	-1.1	-12.1	12.5	19.5	-2.4	2.4	-4.9	-4.3	-22.7	-2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1월 통계는 잠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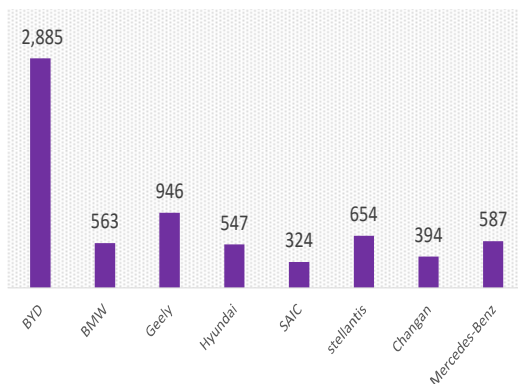
부록 |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 한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포스코경영연구원(2024년 12월)

-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파급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글로벌 판매 1위 업체 BYD와 3위 업체 Geely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소형 해치백·SUV 및 중형 세단의 한국 시장 출시를 준비
 -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R&D 지원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내수 초과 부분의 글로벌 판매량이 급성장하는 추세
 -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급격한 수출 증가로 기존 사업자들(獨 폭스바겐 등)이 공장 폐쇄 및 시장 점유율 추월 등 생존의 기로에 직면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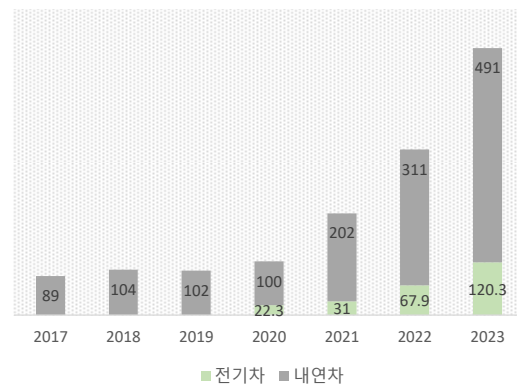
단위: 천대



자료 : EV-Volume(2024년 7월).

〈 중국의 자동차 수출 추이 〉

단위: 만대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주 : 2023년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442만 대.

□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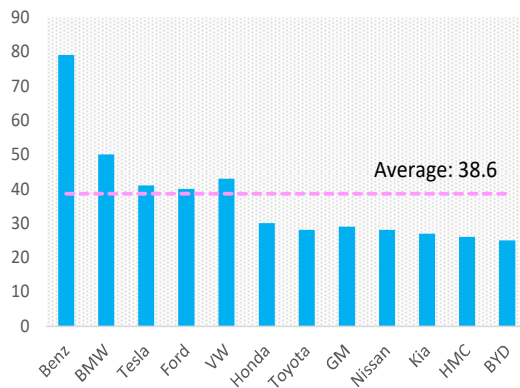
- 중국은 中 정부의 압력과 내수시장 초과 공급에 따라 자동차 수출 대국으로 부상,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수출 급증세가 자동차 수출 확대를 견인
 - 2010년 7대 신흥전략산업, 2015년 제조 2025, 2020년 신에너지차 산업발전계획 등 전기차 산업육성책으로 2017년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 2021년 코로나19 이후 EV 침투율 10%를 돌파하면서 2023년 판매량 950만대 기록
 -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中 정부가 해외 매출 비중을 50%로 요구하면서 산업가동률 60~65%의 초과 공급 기조가 이어지고, 2020~23년에 연평균 70% 이상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일본의 자동차 수출량을 상회
 - 유럽과 ASEAN 시장 내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5.0%, 36.6%를 차지하면서 차량 생산과 함께 상승 지속(EV-Volumes, 2024년 7월)

□ 중국 전기차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 요인

- (유럽) 中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저임금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재료 소싱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소형/준중형 중심의 다양한 모델 라인업으로 시장 진입을 확대
- (동남아) 신흥국 내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신흥국들의 니즈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현지화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

〈 전기차 브랜드별 평균 판매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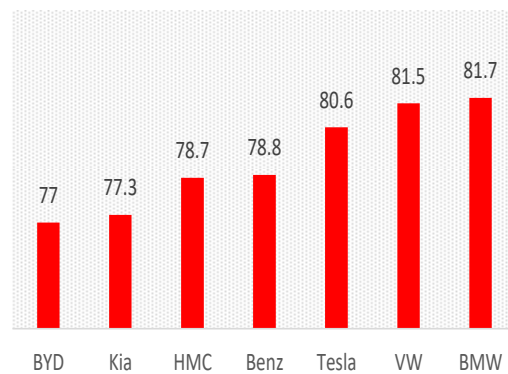
단위: 1천 달러



자료 : 삼성증권(2024년 8월).

〈 전기차 브랜드별 매출원가율 〉

단위: %



자료 : 삼성증권(2024년 8월).



□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 (가격경쟁력) 한국의 전기차는 기존 시스템 활용에 따른 낮은 감가상각비와 영업비용으로 인한 높은 원가경쟁력이 강점이나, 중국產 전기차는 수직계열화된 공급망과 낮은 인건비에 따른 재료비와 노무비 등이 강점으로 작용
- (구매지원 보조금) 2024년 전기차 구매지원 관련 정책(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 보조금 축소)으로 중국產 상용차 보조금 지급률이 최대 76%까지 축소

□ 시사점

-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 플레이어 업체들의 생존경쟁 격화와 과잉공급에 따른 전략으로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투자 및 대리점 확대 등에 주력함에 따라 국내 부품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가
-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LFP 기반 Cell to Pack 구조(CATL, BYD)와 블레이드 기술(BYD) 도입 등 패키징 영역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 배터리 조달 원가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과 현대·기아 등 기존 사업자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產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나, 중국產 전기차의 가성비 우위 등을 감안 시 국내 공급망 조정과 산업구조재편의 여지는 상존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9일)	(12.10)	(12.11일)	(12.12일)	(12.13일)
 23.3분기 실질GDP (수정치)  11월 소비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  11월 고용동향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생산자물가	 10월 산업생산(수)  10월 산업생산
(12.16일)	(12.17일)	(12.18일)	(12.19일)	(12.20일)
 10월 기계수주  10월 소매판매(수)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수출입통계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연준 FOMC~12.18일	 11월 무역수지(잠)  BOJ 통화정책회의  11월 소비자물가(수)	 11월 경기선행지수  23.3분기 실질GDP (확정치)	 11월 소비자물가  11월 개인소비  11월 생산자물가
(12.23일)	(12.24일)	(12.25일)	(12.26일)	(12.27일)
 12월 소비자신뢰지수	 11월 내구재수주(잠)  12월 소비자동향조사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1월 무역수지(수)	 11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매판매(잠)  11월 실업률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2.30일)	(12.31일)	(1.1일)	(1.2일)	(1.3일)
 11월 산업활동동향	 12월 소비자물가	 12월 수출입통계		 12월 ISM 제조업지수
(1.6일)	(1.7일)	(1.8일)	(1.9일)	(1.10일)
	 12월 소비자물가(예)  11월 실업률  12월 ISM 서비스업지수  11월 무역수지	 12월 경제제감지수	 11월 소매판매	 1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12월 고용보고서  12월 고용동향
				(1.12일)
				 12월 소비자물가  12월 수출입통계